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노인 가구 유형의 변화를 통해 본 노년기 가족

차승은 (수원대학교)

- 지난 10년 동안 노인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단둘이 살아가는 형태의 노인 단독가구가 노인 전체 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노인 독거가구는 지난 2000~2020년 사이에 그 비중이 3.8%p 가량 증가하였고, 노인 부부가구는 2000년에 노인 전체 가구의 33.1%를 차지한 이후 2020년에 34.9%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노인 가구 중에서도 노인 부부가구는 노인 독거 혹은 자녀 동거가구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 관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서 모두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다.
- 최근에 올수록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거나 시설 요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자녀와 동거를 선호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거동이 불편할 때에도 자녀동거를 원하는 노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 국제비교자료를 통해 노인의 가구형태를 보면, 선진국에서 노인 부부가구가 노인 가구의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 부부가구는 생애 후반기에 배우자 사별이나 돌봄 이슈와 연동하여 노인 독거나 자녀 동거가구로 분화한다.

가구 구성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런가 하면, 소득의 증가, 성평등 이데올로기의 확산, 의료기술의 발달, 도시화, 세계화 그리고 이주문제와 같은 거시적 변화 역시 고령자의 가구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와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가 노인의 일상에 침예한 문제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독거가구 뿐 아니라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노인 단독가구가 자녀 동거가구와 비교해서 그 규모와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와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 유형을 노인 독거가구, 노인 부부가구, 자녀 동거가구, 기타 가구¹⁾ 형태로 구분하여 유형별 비중과 특성, 그리고 삶의 질을 추적하였다. 더불어 UN 고령화보고 및 기타 관련 통계 자료에서 노인 가구의 특성과 유형별 비중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생애 후반기에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까? 가족생활주기에 따르면, 자녀의 독립과 함께 찾아오는 빈둥지(empty nest), 건강 악화와 배우자 사별, 이후 죽음에 이르는 중요한 생애 사건 등이 노년기

1) • 노인 독거가구: 노인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 노인 부부가구: 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1세대 가구 중 형제자매나 기타 친척과 함께 사는 가구는 기타 가구로 분류함.
 • 자녀 동거가구: 65세 노인이 미혼 혹은 기혼자녀(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2세대 가구 중 노인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기타 가구로 분류
 • 기타 가구: 기타 가구에는 앞서 언급한 가구 외의 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를 모두 포함함.



노인 가구 유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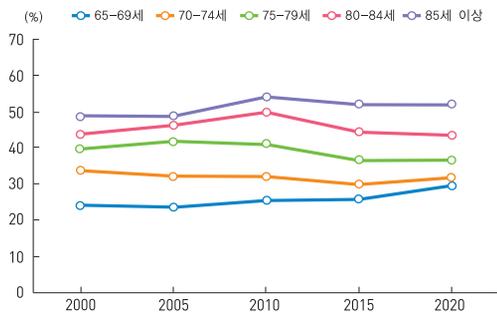
노인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단둘이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관리, 유지하는데 있어 노인이 통제성과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유엔(UN) 보고서(2017)에 따르면, 노인 가구 유형의 최근 경향은 상당히 명확하다. 많은 노인이 자녀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통계를 살펴보면, 노인이 사회경제적인 자원을 갖추었을 때 더욱더 노인 단독가구를 이루는 비중이 커진다. 우리 사회 역시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노인 세대가 등장하면서 노인 단독가구로의 구성 경향이 더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인의 가구 유형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인 독거가구의 비중은 31.3%(54만 3천 가구)이었고,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더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35.1%(166만 1천 가구)에 이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33.1%인 57만 4천 가구였고, 2020년에는 전체 노인 가구의 34.9%인 165만 2천 가구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0년에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를 합한 전체 노인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4.4%(31.3%+33.1%)수준이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비중이 70.0%(35.1%+34.9%)로 더 늘어난 반면, 미혼자녀와 함께 살거

나 기타 가구(기혼자녀, 기타 친인척, 비혈연가구 포함)로 살아가는 형태는 가깝스로 30%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노인 독거 및 노인 부부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추세는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별로 각각 증가의 속도와 내용이 다르다. 먼저, [그림 II-15]에서 노인 독거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연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지난 20년 사이 80대 이상 연령에서 노인 독거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특히 85세 이상 연령층의 독거가구 비중이 2000년에는 전체 노인 가구의 48.6%(2만여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54.0%(7만 4천여 가구)로 가구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한편, 2015~2020년 사이에는 60대 노인(65~69세) 연령층에서도 독거가구 비중이 늘어난 추세가 발견된다.

[그림 II-15] 노인 독거가구의 연령별 분포,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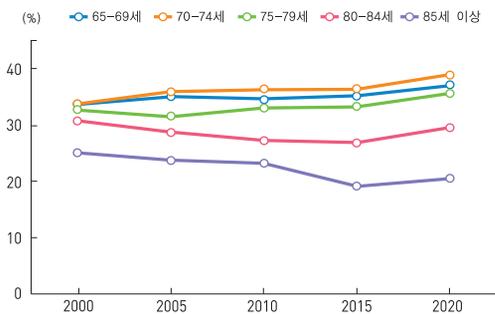


주: 1) 노인 독거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임
 2)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정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노인 부부가구의 연령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75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노인 부부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015~2020년 사이에는 80대 초반 연령층에서도 노인 부부가구가 늘고 있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령 노인 집단을 중심으로 부부가구가 늘고 있는 현상은 남녀의 기대여명이 모두 상승한 점과 관련이 있다. 노인 부부가구의 증가는 자녀 독립 이후 빈둥지(empty nest) 기간이 75세 이후로 더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II-16).

[그림 II-16] 노인 부부가구 연령별 분포, 2000-2020



주: 1) 노인 부부가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배우자로만 이루어진 가구이며, 1세대 가구 중 형제자매나 기타 친척과 함께 사는 가구는 기타 가구로 분류함.
 2)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구의 비중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서베이 자료인 2011년과 2020년의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노인 가구 유형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았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았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비중과 다소간 차이가 있다.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는 노인 단독가구 비중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미혼과 기혼 모두 포함)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II-4〉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조사 대상 노인 1만 674명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전체의 19.6%를 차지하는데, 2020년에는 그 규모가 여전히 19.8%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노인 독거가구 규모가 「인구주택총조사」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앞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노인 독거가구 규모가 2010~2020년에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은 유사하다.

노인 부부가구로 살아가는 노인은 2011년 48.5%에서 2020년 58.4%로 거의 10%p 늘어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은 2011년에는 27.3%였지만, 2020년에는 20.1%로 감소하였다.

〈표 II-4〉 노인 가구 유형별 구성 비율, 2011, 2020

	2011		2020	
	(명)	(%)	(명)	(%)
전체	10,674	100.0	10,097	100.0
노인독거	2,094	19.6	1,998	19.8
노인부부	5,172	48.5	5,898	58.4
자녀동거	2,916	27.3	2,026	20.1
기타	492	4.6	174	1.7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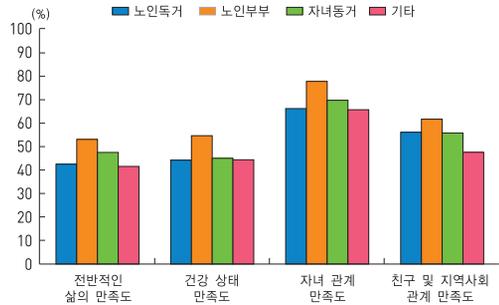
노인 가구 유형별 삶의 질

노인이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은 노년기 일상생활 맥락과 가족관계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구 유형별로 삶의 질 전반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림 II-17]에서는 「노인실태조사」 중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가구 유형별로 응답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서 노인 부부가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이 52.9%로 나타났다. 자녀 동거가구의 만족 수준 47.3%, 노인 독거가구의 만족 수준 42.6%보다 더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삶의 만족도 개별 항목인 건강상태 만족, 자녀 관계 만족 그리고 친구나 지역사회관계 만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노인 부부가구로 살아가는 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에서 살아가는 노인에 비해 삶의 주요 영역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노인 독거가구와 비교해서 노인 부부가구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자녀 동거가구와 비교해도 노인이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있을 때 삶의 질 수준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 독거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이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 기능적인 면에서 제한을 겪으면서 노인의 이러한 독립적인 삶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림 II-17] 노인 가구 유형별 삶의 만족도, 2020



- 주: 1)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관계 만족도'는 현재 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함.
 2) 삶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각 항목별로 5개의 응답범주('매우 만족함'-'전혀 만족하지 않음')로 측정하였고,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을 합한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표 II-5> 노인 가구 유형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율, 2011, 2020

	2011			2020		
	기능 제한 없음	IADL 제한	IADL 및 ADL 제한	기능 제한 없음	IADL 제한	IADL 및 ADL 제한
노인독거	83.0	10.4	6.6	86.2	8.0	5.8
노인부부	89.0	5.0	6.0	90.5	5.2	4.4
자녀동거	79.9	10.2	9.9	81.9	9.3	8.8
기타	84.7	9.4	5.9	84.7	9.2	6.1

-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노인의 신체기능상태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개 항목 및 일상생활수행능력(ADL)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포함된 모든 동작들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경우 기능 제한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각 척도에 포함된 동작들 중 1개 이상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기능 제한자로 분류하였음.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표 II-5>에는 가구 유형별로 기능 제한을 가진 노인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에 「노인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노인의 86.2%는 기능 제한을 겪지 않았고, 13.8%의 노

인이 기능 제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1년 조사에서 나타난 기능 제한 수준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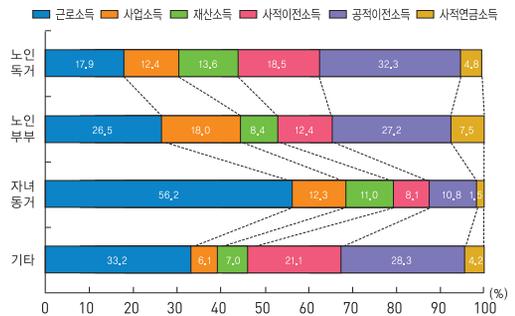
예측대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2011년, 2020년 모두에서 기능 제한을 겪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았다. 2020년 자료를 보게 되면, 자녀 동거가구에서 도구적 기능 제한(IADL)을 겪는 노인은 9.3%, 그리고 도구적 기능 제한과 일상생활 기능 제한(ADL)에서 모두 제한을 겪는 노인은 8.8%였다. 때문에 <표 II-5>의 자녀 동거가구에서 노인의 기능 제한 규모가 다른 가구 유형보다 더 높은 이유는 노인의 기능 제한에 대한 도움과 수발을 위해 자녀 동거가 이루어진 맥락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이 기능 제한을 겪는 상황에서 자녀 동거가 이루어졌다면, 돌봄부담 차원에서 자녀 동거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혼자 살아가는 노인도 도구적 기능 제한이나 일상적 기능 제한을 겪는 비중이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 독거가구는 배우자의 사별 혹은 황혼이혼 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연로한 노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이 기능 제한을 겪을 때 자녀 동거가 어렵다면 결국 비동거 자녀와 공식/비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2011년에는 도구적 기능 제한을 겪는 노인은 10.4%, 그리고 일상적 기능 제한과 도구적 기능 제한 수준이 모두 취약한 노인은 6.6%였으나, 2020년에는

노인 독거가구에서 기능 제한을 겪는 노인이 다소 감소하였다.

노인 가구의 삶의 질을 파악함에 있어 소득 구성은 개별 가구의 경제적 자립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림 II-18]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로 소득 원천 구성비는 상이하게 드러난다. 노인 독거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부터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 연금소득까지 합치면 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낸 소득'이 거의 49%에 달한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소득 비중이 전체 소득의 60%를 넘는다. 그에 비해, 자녀 동거가구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노인이 근로 연령대에 해당하는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 동거가구에 사적 이전소득이 존재하는데, 자녀 동거가구의 경우 노인이 자녀 또는 기타 비동거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II-18] 노인 가구 유형별 소득 원천 구성비율, 2020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전년도 11~12.31 기준의 연간 총소득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전반적으로 노인 부부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는 결혼 지위에 따른 보상과 혜택이 실제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노인 부부가구는 자녀 동거가구와 비교하면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나 돌봄 문제가 닥쳐도 서로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가구 형태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을 수 있다. 더 건강하고, 자녀와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결혼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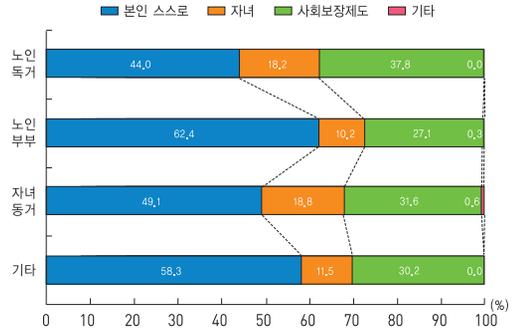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다음으로 노인의 가구 유형별로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노인의 가구 유형별로 현재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선호에서도 차별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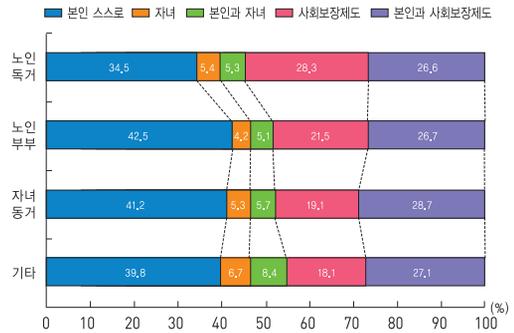
노인이 희망하는 소득마련 방법에 대해 노인 가구 유형별 응답 내용을 살펴본 것이 [그림 II-19] 이다. 2011년에는 노후 생활 방법을 '본인 스스로', '자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기타'로 구분했지만, 2020년에는 제시된 응답 항목들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런데, 2011년에 비해 2020년 자료에서는 '자

[그림 II-19] 노인 가구 유형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2011, 2020

1) 2011년



2)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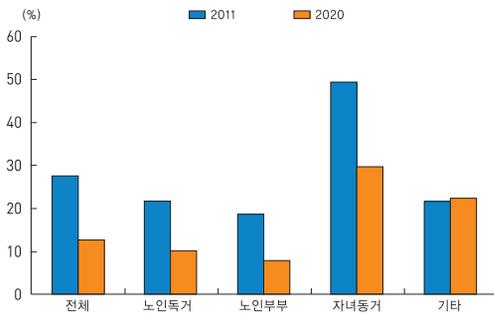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귀하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며, 2011년에는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가 응답 보기로 제시되지 않았음.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녀'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의지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지난 약 10년간 '본인 스스로' 혹은 '본인과 사회보장'의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 비중이 더 커졌다. 노인 독거가구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011년에 18.2%였지만, 2020년에는 10.7%(5.4%+5.3%)

까지 줄었다. 노인 부부가구에서도 자녀에게 도움을 희망하는 비중은 9.3%(4.2%+5.1%)이며,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자녀 동거가구도 역시 자녀의 도움 비중이 2011년 18.8%로 나타났지만 2020년에는 11.0%(5.3%+5.7%)로 감소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본인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보인다.

[그림 II-20] 노인 가구 유형별 자녀와 동거 희망률, 2011, 2020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자녀와 동거 희망률은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이와 함께, 노인들이 실제 얼마나 자녀와 동거하고 싶어 하는지 가구 유형 별로 그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II-20]에 따르면, 2011년에는 전체 노인의 27.6%가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2020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12.8%까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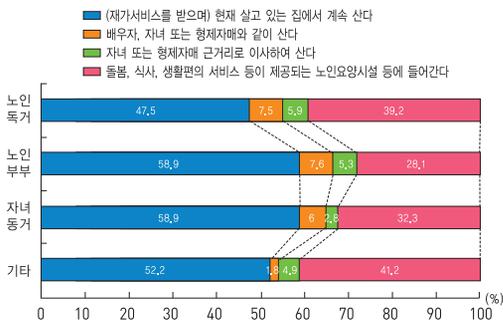
노인 가구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내용은 더 흥미롭다. 2011년에는 노인 독거가구의 21.7%가 자녀와 동거를 희망했지만, 2020년에는 그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이 10.3%에 그친다. 배우자와 살고 있는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7.8%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들이 자녀와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최근에 올수록 강해졌음을 뜻한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011년에는 49.4%가 자녀와 함께 살겠다고 응답했지만, 2020년에는 29.7%만 자녀와 동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70%가 현재 자녀와 동거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기타 가구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독거가구 노인이 유사시 노인요양시설 선호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의 현재 선호사항과 별개로 실제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노인은 어떠한 선택지가 있다고 판단할까? [그림 II-21]에서는 노인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할 때 어디에서 살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지 그 선호도를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전체 노인의 54.4%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경향은 모든 가구 유형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드러난다. 그 다음 순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거주형태는 돌봄이나 식사, 그리고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그에 비해, 부부가구나 자녀 동거가구는 재가 돌봄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선호가 더 강하다. 이는 노인 부부가구와 자녀 동거가구의 노인들이 가족과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함께 기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림 II-21] 노인 가구 유형별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 형태, 2020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희망거주 형태는 "귀하께서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할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노인 가구 유형의 국제비교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제도, 보편적 건강보험, 공공 주거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과 같은 제도가 가용하다는 것은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뜻이다. 노후보장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높는데, 노인은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이러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얻는다.

〈표 II-6〉 노인 가구 유형의 국제비교, 2010-2020

국가명	노인 단독가구 (%)			자녀 동거 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합계	
아시아				
일본 ²⁾ (2010)	16.6	37.0	53.6	-
일본 ³⁾ (2017)	17.7	34.9	52.6	40.8
한국 ⁴⁾ (2011)	19.6	48.5	68.1	27.3
한국 ⁴⁾ (2020)	19.8	58.4	78.2	20.1
유럽				
핀란드 ⁵⁾ (2010)	36.4	52.0	88.4	-
벨기에 ⁵⁾ (2011)	26.7	51.5	78.2	-
독일 ⁵⁾ (2011)	34.1	57.8	91.9	-
이탈리아 ⁵⁾ (2011)	33.0	42.2	75.2	-
스페인 ⁵⁾ (2011)	19.8	42.5	62.3	-
북미				
미국 ¹⁾ (2010)	28.8	46.7	75.5	8.3
캐나다 ¹⁾ (2011)	26.8	50.2	77.0	10.2

주: 1) 제시된 비율은 시설 거주나 기타 거주 사례가 제외된 수치임. 국내외자료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로서 센서스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살펴본 수치와 차이가 있음.
 출처: UN,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0: Database on the Households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2019.
 1) IPUMS: Integrated Public use Micro data Series (Minnesota PoP Center).
 2) DYB: Demographic Year Book of United Nation.
 3) 국립사회보전·인구문제연구소(2017) 보고서, Ato, M. Tsuya, N. (2018) 논문에서 발췌.
 4)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5) LFS: Labor Force Survey.

〈표 II-6〉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 비중은 68.1%로, 이미 남부 유럽의 대표적인 가족주의 나라인 스페인(62.3%)보다도 더 크다. 그리고 2020년의 한국의 노인 단독가구 규모는 전체 노인 가구의 78.2%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유럽의 이탈리아(75.2%), 벨기에(78.2%), 북미의 미국(75.5%), 캐나다(77.0%)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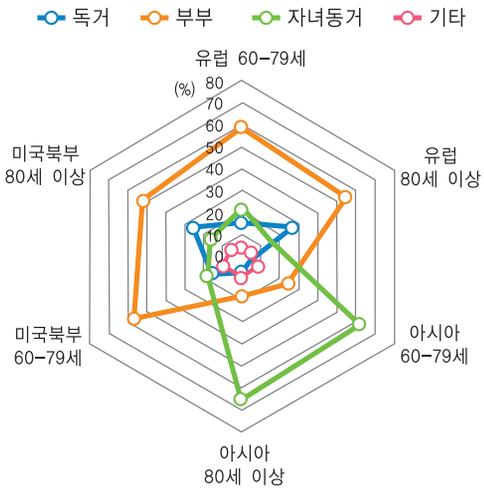
다 크거나 같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단독가구 규모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동아시아권인 일본, 한국은 모두 효 및 부모-자녀 간의 상호 호혜성의 규범을 공유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인 단독가구 비중과 자녀와의 동거율에서 한국과 일본의 행로는 상이하다. 한국은 노인 단독가구 합계 비율이 2011년 68.1%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0년 일본의 노인 단독가구 합계 비율인 53.6%보다 수치가 크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선 1998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주로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일본은 아직 노인시설 거주가 보편화 되지 않았다. 노인 가구에 대한 서베이 자료에 기초한 2017년 일본의 노인 가구 유형을 보면, 노인 단독가구 비중은 52.6%이고 자녀 동거가구 비중은 40.8%에 이른다. 그에 비해, 비슷한 유형의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한국은 자녀 동거가구 비율이 2011년에는 27.3%, 2020년에는 20.1%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지역 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러한 사회체제 속에서도 노인의 자녀와 동거율이 한국의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지역과 가족이 함께 노인을 돌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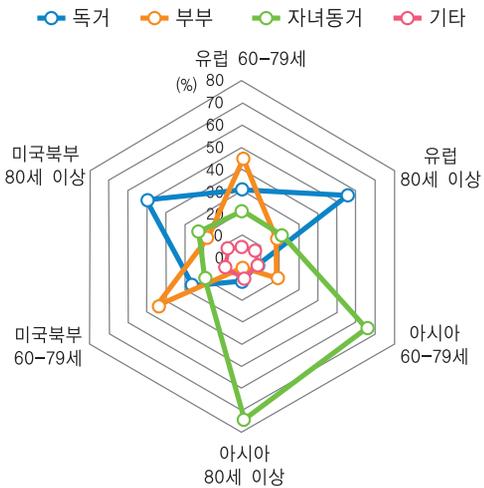
한편, 복지체제가 고령 친화적인 국가, 이를테면 핀란드(88.4%)나 독일(91.9%)에서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유독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는 노인 부부가구 비중이 노인 독거가구 비중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그림 II-22] 성·연령 집단별 노인 가구 유형의 분포: 권역별 국제비교, 2010

1) 남성



2) 여성



출처: UN,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A Report on an Expanded International Dataset*, 2017.

80~90%에 육박하는 독일이나 핀란드에서도 노인 단독가구의 2/3는 노인 부부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 지역에서도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탈리아(75.2%)



나 스페인(62.3%)에서도 노인 부부가구는 전체 가구의 42% 가량을 차지한다. 배우자 상호 간에 노-노 돌봄,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 제한을 겪고 경제적 자립도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80세 이상 생애 후반기에 이르면 거주하는 가구 유형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II-22]에는 남녀 노인의 가구 유형의 분포를 연령 집단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고령 노인의 상당수가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나이가 들거나 배우자 사별 후에도 거주지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80세 이상 고령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남성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능성이 크지만, 여성 노인은 배우자 사별 이후 독거를 하거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생애 후반기에 이르렀을 때 거주지 이동 및 다양한 가구에서 살아가고 적응하는 생애 과업에 직면한다는 것을 뜻한다.

맺음말

노인의 가구 유형과 이에 대한 정보는 인구고령화사회에 노인의 일상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거주지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가구 유형 특성은 정책 환경 뿐 아니라 그 사회에서 노년기 삶에 대한 문화적 각본과 노인 자신의 선호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간혹 노인 가구 유형에서 변화는 느리게 움직이는 듯하나 어느 한순간 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인의 적응과 사망률을 보고한 보고서(UN, 2020)에 따르면, 시설 요양을 받았던 북서부 유럽지역 노인들의 사망률이 크게 늘었다. 또한, 자녀와 동거가구에서 감염률과 사망률이 함께 높았다. 이는 앞으로 노인 돌봄, 노인 가구 유형과 선호에서 다시 한번 큰 지형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노인이 누구와 어디서 살아감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들이 제시될 수 있고, 노인은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Ato, M. & Tsuya, N. 2018. "Aspects of Childless and Aging Society." Eds. Women and Family in the Age of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Tsuya, N., Ato, M., Nishioka, H. & Fukuda, N.) p.1-55, Keio University Press.
UN. 2020. "World Population Ageing 2020: Highlights". DESA Report.